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관련
아시아 ODA 현황과
정책수요 조사”
에 관한 출장보고서

출장보고회

- 일시: 2016.6.28.(화) 2시
- 장소: 534호(다평실)

출 장 자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출 장 지	태국 방콕(UN ESCAP, KOICA, ILO 방콕 사무소, UNICEF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캄보디아 프놈펜 (KOICA, UNICEF 캄보디아 사무소, 캄보디아 보건부, NGO 등)
출 장 기 간	2016.6.5.~6.11.(6박7일)
목 적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관련 아시아 ODA 현황과 정책수요 조사
과 제 명	아시아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사업 (2016.01.01.~ 12.31.)
세부 활동사항	
<p>◆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6일 10:00~12:00, UN ESCAP 회의실</p> <p>◆ 안 건: 한국과 국제기구의 다자간 국제협력의 가능성</p> <p>◆ 참석자: 원외) 김태형(UN ESCAP Economic Affairs Officer), 김유진(노동부 파견, ILO Programme Coordinator)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p> <p>◆ 회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펀딩을 통한 ODA 사업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펀딩인 경우, 반드시 한국으로 펀딩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 원칙적으로 경쟁력있는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함. - ILO는 펀딩출처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함. - 한국의 경험과 사업방식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임. - 첫 번째 국가와의 사업을 보여줄 필요! 정책경쟁력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 - 정기적이지 않다는 단점. ○ 코이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이카는 자금의 안정성이 있는 반면, 정책은 잘 안본다는 단점이 있음. 외교부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조사 등 장기적인 업무를 할 시간이 없음. 코이카 펀딩을 한번 잡는 것이 중요! 돈은 거의 코이카를 통해 나오는 것이며, 한번 파트너가 되면 펀딩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될만한 사업으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함. - 수원국의 수요를 모을 수 있는 국제회의를 조직할 것을 제안: 실질적으로 잠재적 수원국과의 국제회의를 organize하여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수요를 이끌어내고, 수요는 분명히 있으므로 그들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KIHASA에 대한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협력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commitment가 중요함. 예를 들어, 국토연의 경우 꾸준히 초청하고 관계를 맺고 설득하여 5년만에 MOU 체결 - 연수프로그램도 고려할 만함. - 코이카 ODA 정책실 만나볼 것. - 아이디어: 수원국에 필요한 기념품, 현지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요 끌어내기 <p>◆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6일 13:00~14:00, ILO 아태지역사무소 회의실</p> <p>◆ 안 건: ILO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KIHASA와의 협력가능성에 대한 논의</p> <p>◆ 참석자: 원외) Nuno Meira Simoes da Cunha(ILO Senior Technical Specialist on Social Protection)</p>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ILO 지역사무소 역할
 - ILO는 대부분의 저개발 회원국의 상황에 맞는 사업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들과 네트워크가 있으므로 훌륭한 연구토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 회원국 상황
 - 베트남, 캄보디아 등 ILO와 UNICEF 등의 협력으로 포괄적인 사회보장시스템 구축하는 중. draft 완성단계이며 이제 실행(implementation)하는 문제가 남았음.
 - 베트남의 경우 costing modelling. 보고서 공유예정.
- KIHASA와 협력 가능성
 - 한국 연금제도에 높은 관심이 있음. 그 외에도 한국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함. 아시아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리서치와 ILO와의 콜라보 방안을 찾아볼 필요. 10월 고용정보원에 고용보험 연수단과 함께 방문예정.
 - 짧게나마 영문으로 된 각국의 제도를 접할 수 있다면 정보 공유 차원에서 또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매우 도움될 것. KIHASA와의 MOU도 좋은 생각.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6일 15:00~16:00, KOICA 태국사무소

◆ 안 건: KOICA 태국사무소의 주요 업무와 ODA 협력가능성 논의

◆ 참석자: 원외) 이경수(KOICA 태국사무소장)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코이카 태국사무소는 ODA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아님. 태국에 나와있는 봉사단을 관리하는 역할
- 코이카가 사업을 선택할 때 실행하기 쉬운 사업을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수요가 또한 매우 중요함.
- 시장성이 코이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님.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7일 08:00~10:00, UNICEF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 안 건: UNICEF 지역사무소 역할과 협력가능성

◆ 참석자: 원외) Wivina Belmonte(Deputy Regional Director, UNICEF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사회보장체계에 있어 UNICEF의 초점
-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있어 Early Childhood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을 주되게 피력.
- 캄보디아는 아세안 국가(ASEAN)에 영향력이 있으므로 캄보디아 사회보장체계를 잘 구축하여 아세안 국가들에 좋은 예로 활용하고 싶어함.
- 지역사무소와 국별사무소의 역할
- 지역사무소는 중국, 몽골 등 국별 상황을 분석하는 리서치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술적 지원

(technical support)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국별 사무소 역시 데이터와 증거를 수집하지만 그보다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전달 체계(delivery system)를 마련하고 국별 프로그램에 맞게 실행

○ UNICEF 사업방식

- 주된 사업파트너는 시민사회(CSO)와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높기 때문임.
- NGO의 역할 수행에 관해, 유니세프가 리서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지만 이를 일거에 법제도로 수립하지는 못함.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증거(evidence-based)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분담.

- 아동보호사업과 관련 사회보장체계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KIHASA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UNICEF 아태지역사무소가 적극 협력할 것임.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7일 11:00~14:00, UN ESCAP 사무실

◆ 안 건: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연구, 사업필요성에 대한 논의, 보건복지부의 역할

◆ 참석자: 원외) 현수엽(UN ESCAP NRL Expert on Social Policy)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보건복지분야 ODA 사업의 현황과 과제

- 한국 보건복지분야 ODA 사업은 여러 실행주체가 여러분야를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파편화되어 실행하여 때로는 중복, 때로는 비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보사연이 보건복지분야의 개별적인 개발협력사업이 거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분야별, 주체별로 사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보건복지 수요에 맞게 국별, 주제별, 분야별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보임. 코이카나 코피가 아닌 보다 중립적인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측면에서 보사연이 적절
- 과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 보건의료부문 ODA에 한정되어 있음
- 보건복지분야의 사업과 SDG와 하나하나 관련지어 봄으로써 과거 MDG에서 건강 하나로 묶여있던 여러 사업들이 나뉘지면서 어떤 SDG와 연결되는지, 혹은 어떤 분야가 비어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SDG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
- 코이카 보건의료부문 전략도 확인할 것

○ 해외에서 느끼는 한국의 위상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나라이므로 다른 나라와 공유할 경험이 많음.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건설팅을 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에서 느끼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 등의 위상은 한국에서 느껴지는 그 이상이므로 ODA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이 위상에 걸맞게 변모해갈 필요가 있음.
- 코이카와 한국정부가 국제협력사업이나 국제기구의 큰 규모 donor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걸맞는 발언력을 가지지는 못함. 보사연이 복지부가 참여해야하는 국제회의를 챙기고 보건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등에 대한 이슈와 논쟁의 역사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국제이슈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위상에 걸맞는 발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Srinivas Tata(Chief, Social Policy and Population Section, UN ESCAP Social Development Division)와의 추가미팅
- KIHASA가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에 적극적으로 기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 (레터를 보내주기로 했고 영문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할 의향이 있음)
- 사회복지분야 지출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케이스스터디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 보사연에서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면 영문화를 통해 dollar&sense로 출판하는 등 연구확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 한국데이터에 익숙한 한국 연구자가 수행하기를 원함.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8일 12:00~14:00, MALIS restaurant

◆ 안 건: UNICEF Cambodia Meeting일정 논의 및 Unicef활동에 대한 소개, 방문기관에 대한 개괄

◆ 참석자: 원외) Pauline Yonngun Ahn(UNICEF Cambodia Maternal and Child Health Coordinator)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전체 방문 및 인터뷰 일정에 대한 조정 및 공유과정
 - 일정은 이후 진행되는 일정과 같음.
- UNICEF Cambodia의 조직에 대한 개괄적 소개
- 각급별 Unicef의 체계와 역할의 차별성
- Unicef Cambodia 보건팀의 현재 ODA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 현재 Universal Health Care를 구축하기 위해 USAID, GIZ, KOICA, UNICEF 등 다양한 에이전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USAID는 자국의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GIZ는 바우처제도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등 목표와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가 있음.
 - 따라서 UNICEF 보건팀은 이 협의체를 벗어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점진적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시 및 장소:2016년 06월 08일 15:00~17:30, UNICEF Cambodia 회의실

◆ 안 건: 캄보디아의 의료보험, 보건의료제도 현황소개, 빈곤지역 모자보건 ODA 사업소개

◆ 참석자: 원외) Etienne Poirot(Chief Child Survival and Development, Integrate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UNICEF Cambodia), Pauline Yonngun Ahn(UNICEF Cambodia Maternal and Child Health Coordinator)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현재 캄보디아 ODA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의
- evidence based ODA사업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 UNICEF보건팀의 과제, longitudinal research에 대한 소개

- 현재 Unicef Cambod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모니터링 종단연구사업인 Enhanced Monitoring of Health and Nutrition in 6 Districts: The Cambodian Health and Nutrition Monitoring Study(CAHENMS) 2016-2019에 대한 개요설명
- 프로젝트의 대상지역: 캄보디아의 가장 가난한 지역인 동북부의 2개 provinces((Ratanakiri, Kratie) 와 프놈펜(Phnom Penh)에 속하는 6 districts
- 프로젝트명: The Cambodian Health and Nutrition Monitoring Study (CAHENMS)
- 표적화집단: 자녀가 없는 가임기 기혼여성과 임신부와 5살 미만의 영유아
- 사업기간: 36개월, 2016년 3월 1일~2019년 3월 31일
- 참여주체: UNICEF Cambodia가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농업산림어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프놈펜 왕실대학교(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와 the Institut de Recherche pour le Development 연계하여 추진
- 현황: 캄보디아 영유아 아동은 영양실조, 기아 등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및 발달의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
- 목적: 캄보디아 아동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이해하고 정책개입의 효과성 제고

○ 캄보디아 아동의 건강상태

- 2014 Cambod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CDHS) 결과, 캄보디아 Millennium Development Goal(CDMDG)에 미달, 5세 미만 아동 중 32.4%가 발육부진, 23.9%가 체중미달, 9.8%가 병약

○ 캄보디아 아동의 영양실조의 경계에 미치는 영향

- 아동 영양실조가 캄보디아 GDP중 250백만~400백만의 연간손실액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산 (UNICEF/WFP)

Indicator	Prevalence	Precision	Impact	Sample size / province
Diarrhea	11% (6 wks/yr)	3%		417
		2%		932
			11% to 9% (reduction from 40 to 32 days/yr)	3531
			11% to 8% (reduction from 40 to 29 days/yr)	1499
Acute Resp. Inf	20% (10 wks/yr)	3%		679
		2%		1514
			20% to 16% (73 days to 58 days/yr)	1447
			20% to 15% (73 days to 54 days)	906
Stunting	32%	3%		921
		2%		2047
			32% to 30%	8394
			32% to 28%	2060
			32% to 26%	897

- UNICEF는 3개의 enhanced health monitoring (EHM) sites에서 새로운 정책개입과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 설사, 급성호흡기질환, 성장부진 발생률의 감소를 성과지표로 함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의료(universal health care)를 제공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9일 10:00~11:30, UNICEF Cambodia 회의실

◆ 안 건: 캄보디아 아동빈곤 및 학대현황,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 참석자: 원외) Bruce Grant(Chief Child Protection, UNICEF Cambodia Country Office), Pauline Yonngoun Ahn(UNICEF Cambodia Maternal and Child Health Coordinator)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캄보디아 아동현황

- 고아원에 있는 75%의 아동은 부모가 있음. 가난한 부모는 아동을 포기
- 자녀에 대한 폭력을 훈육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 아동에 대한 통계미비-통계관리 (정보관리체계)

- 3년안에 30%만큼 폭력감소를 목표로 함

○ 국가의 아동보호체계(Child protection system) 갖추어지지 않음

-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학대보고 의무화
- 체계가 아동의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으나 현재는 아동보호체계 미비
- Cambodian National Council of Children
- 주관부처 Ministry of Social Affairs

○ 아동보호에 있어서 ODA 아동을 고아원 농장에 displace

- 분권화와 분산-중앙정부에서 지역차원으로 가능이전
- 중앙수준에서 역량을 개발

○ 아동보호를 중점 아젠더로 채택하고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강제화 그러나 사회적 기준-아동학대에 대한-은 매우 낮음. 따라서 정부의 인식을 강화시켜야 함

- Post 2015 개발목표는 MDGs에서 다루지 못했던 불평등 또는 사회 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논의와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아동관련 이슈를 반영하고 있음

-Post2015 개발의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동권리 이슈에 주목함과 동시에 아동관련 정책 및 전략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여아와 여성의 권리 확대 및 양성평등 확립: 여아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방지 근절, 미성년 결혼근절
-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제공: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보장
- 건강한 삶: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근절, 산모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기아퇴치, 안전하고 영양가있는 식량권 보장, 5세미만 아동의 성장저해 요소 저체중 비율 감소

○ 캄보디아 아동복지 실태

- 아동조혼 15-18 결혼율 매우 높음
- 아동노동 20%의 아동이 건설노동자 의무교육X 높은 학교중도탈락률
- 공식적인 대안가정양육 시스템 거의 없음. 국내입양 거의 없고 대부분 국제입양(아동매매)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9일 14:45~16:00, UNICEF Cambodia 회의실

◆ 안 건: 캄보디아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에 있어 정부조정기구 CARD의 설치목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파일럿 프로그램 소개

◆ 참석자: 원외) Maki Kato(Chief of Social Policy, UNICEF Cambodia Country Office), Pauline Yonngun Ahn(UNICEF Cambodia Maternal and Child Health Coordinator)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캄보디아의 보건 및 사회보장시스템은 현재 ODA 공여국의 위원회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음
 - 사회보험체계와 사회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여 사회보장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범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 2011년 이래 본격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발전해왔으며 CARD는 사회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을 조정하는 조정기구
 - 직접적인 펀딩기구는 아니며 이로 인한 조정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UNICEF와 Card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현금지원제도-Cambodia Cash Transfer Program에 대한 소개
 - 대상: Prast Bakong, Siem Reap Province 지역의 임산부와 5세 미만의 아동
 - 목적: 기본적인 건강 및 영양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빈곤취약지역의 5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영양실조를 줄여나가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Commune으로부터 ID poor1, 2, post ID poor로 인정된 빈곤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와 유아로 적어도 1년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ID poor는 캄보디아의 조세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체적인 자산조사방식
 - 전체 인구의 상위 20%만이 납세자이며 사회보험에 의해 보호될 수 있으며 하위 20%는 모두 사회부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中间的 60%는 어떠한 사회보장체계에 의해서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40%에 달하는 near poor는 Social Equity Fund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보편적 사회부조를 in and out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수당(child support fund)의 확대에 의해 이들을 지원할 필요 있음.
 - 임신기간동안 4번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출산 후 3번의 산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1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건강책업,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등 추가적인 조건부 현금급여를 제공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09일 16:30~18:00, CARD 회의실

◆ 안 건: 캄보디아 사회보장체계 구축 계획에 대한 공유 및 KHASA와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참석자: 원외) CARD 담당자, Maki Kato(Chief of Social Policy, UNICEF Cambodia Country Office), Pauline Yonngun Ahn(UNICEF Cambodia Maternal and Child Health Coordinator)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캄보디아 사회보호체계(Social Protection) 구상과 관련 국제협력 현황
-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기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공공부조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하여 포괄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끝낸 상태 (contributory, social security & non-contributory, social assistance)

- 공공부조는 유니세프와 GIZ 등이 사회보험제도는 ILO(연금)와 GIZ, USAID(건강보험) 등이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설계. costing modelling은 ILO가!
- MEF(Ministry of Economy & Finance)가 개입하고 있으며, CARD가 사업간(for better design), 실행주체(implementation agencies)간 코디네이팅 담당. MEF 역시 사회보장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적, 물적 역량이라는 한정적 상황
- 취약계층에서 보편적인 제도로 나아가려고 함.
- 조세체계는 공적부문에 취업한 20%만 포착, 빈곤층을 identify하는 poor ID가 있으나 다소 자의적인 과정, 데이터 없음
- 꼬분에 하나씩의 보건소는 있음.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금지원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 목적달성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함. 캄보디아 북동지역과 같이 보건소 접근성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다른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
- 한국과 KIHASA에 기대되는 바와 관련 상황
- 코이카가 펀딩을, 보사연이 evidence를 얻을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디자인을 담당해 주기를 희망 (for better design, better implementation)
- 정부 조직을 이용한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음. (World Bank의 cash transfer와의 차이점)
- 영향평가를 해야함. robust evidence 필요함.
- cash transfer pilot: 임신부 1000명 기본조사(baseline survey) 완료
- citizen card 고려했으나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합치하기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음.
- district (8-10개 가량의 꼬분이 있음) 당 1년에 \$100,000이 들 것으로 추산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10일 08:30-09:30, UNICEF Cambodia 회장 사무실

◆ 안 건: UNICEF 캄보디아와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 참석자: 원외) Debora Comini(UNICEF Cambodia Representative), Pauline Yongeun Ahn(Unicef Cambodia)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캄보디아 방문과 KIHASA의 향후 ODA사업에 대한 전망 및 계획에 대한 논의
 - 연구기관으로서 KIHASA가 캄보디아의 보건 복지분야 ODA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여는 제도의 design, 다양한 지방정부차원의 프로그램에 대한 design과 평가작업에 대한 technical assistance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
 - 현재 캄보디아의 보건분야 ODA는 많은 공여국이 참여하고 있으나 USAID와 World Bank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보건체계는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민영화된 사적 보험제도임.
- 빈곤정책, 아동보호 등 다양한 사회보장의 영역에서는 UNICEF Cambodia가 오랫동안 지원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보건영역과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UNICEF Cambodia 접근의 강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 UNICEF Cambodia는 KIHASA의 캄보디아 ODA사업에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싶으며 KIHASA의 초기 ODA사업을 위한 가능한 방식의 지원을 제공할 것임.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10일 11:00~12:30, ILO Cambodia 회의실

◆ 안 건: 캄보디아의 사회보장체계 현황과 이슈, 그리고 Cambodia ILO의 역할

◆ 참석자: 원외) Malika Ok(ILO Cambodia) Betina Ramirez Lopez(ILO Cambodia)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ILO에서는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에 대한 Review를 진행해왔으며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Review(SPER)2012를 발간함
- 캄보디아의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 현황
 - 캄보디아의 공식적인 빈곤률은 10% 초반으로 현실에 비해 매우 낮게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선을 매우 낮게 설정한 탓도 있고, 빈곤선 근처에서 빈번하게 빈곤선을 드나드는 저소득층을 거의 포착하기 못하는 까닭임.
 - 조세체계가 포착하는 상위 20%는 매우 관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누리고 있는 반면, poor ID를 지니지 않은 광범위한 빈곤계층은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우산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양극화를 경험
- 캄보디아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ILO는 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체계 구축에 관여하고 있음.
 - UNICEF, ILO, GIZ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캄보디아 사회보장체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음.
 - ILO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가능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구상했으나 어느 조직이 예산을 비롯한 조직적 실행력을 지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 CARD는 예산도 인력도 없다는 결론.
 - 그나마 움직이는 정부부서는 M of Education과 M of Health임.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성이 높은 M of Social Affairs는 입지가 매우 취약
- 캄보디아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ILO의 계획/ODA 사업 우선순위
 - 최우선 순위는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계리, 법적검토, 관련교육 등을 완료할 계획
 - 산재보험을 확장하는 중기 계획. 캄보디아에도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비공식부문 근로자가 매우 많은 상황. 그러나 기초적인 산재등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으므로 이를 비공식부문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산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보험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건강보험 역시 교육훈련, 경영체계 마련, 콜센터 등 시설마련 등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재정확충을 통해 장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준비할 예정. 현재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만 보험수혜자에 해당하는데, 향후 이를 근로자 가족과 전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구상
- 연구파트너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짧게 논의
 - 연금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연구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로 함.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10일 3:00-5:00, 코이카 캄보디아 회의실

◆ 안 건: 캄보디아 코이카(KOICA)방문 코이카의 역할과 과제 논의

◆ 참석자: 원외) 백숙희(코이카 캄보디아 소장), 김송주(코이카 캄보디아 부소장)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현재 KOICA Cambodia는 캄보디아에서 보건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donor중 하나로서 보건 등 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시스템을 논의하는 공여국 간 논의체계에 참여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KOICA가 가장 큰 필요를 느끼는 것은 정책연구기관으로부터의 정책적 내용적인 technical support임.
- 공여국으로서 KOICA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KOICA의 전문적 지식 부족한 상황으로 그동안 KIHASA의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의료보장시스템에 대한 영문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의 우수한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으나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이에 대한 접근의 한계가 매우 높음.
- 보건복지부나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KIHASA가 ODA사업을 시작할 때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KOICA와 KOPIH 등과 어떻게 협력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synergy효과를 높일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KIHASA의 ODA사업은 KOICA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당국의 제도를 초기단계에서 기획하고 전국화시키는 중앙차원의 개입방식이 적절할 수 있음
- 의료보장은 다양한 국가의 ODA사업이 포화상태로 각축하고 있는 반면, Social Safety Net을 구축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분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KIHASA의 사회보장제도 연구,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의 제도설계 및 도입의 경험을 어떻게 ODA사업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협력 및 조정기관인 CARD를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중앙정부 Department of Plan Department of Social Affairs, Dept of Health, Dept of Education등과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모색할 필요있음

◆ 일시 및 장소: 2016년 06월 11일 1:30~12:30, Friends 회의실

◆ 안 건: 캄보디아 프놈펜의 Friends(민간 아동보호 NGO)방문

◆ 참석자: 원외) Map Somaya(program director, Together Protecting and Building Futures for Children, Youth, Families and Communities), Chetra Khieu(Project Manager, Together Protecting and Building Futures for Children, Youth, Families and Communities), Florence Chatot(Mth Samlanh Technical Advisor), Sophea(Child protection staff, UNICEF Cambodia Country Office), Pauline Yongneun Ahn(UNICEF Cambodia Maternal and Child Health Coordinator)
원내) 김현경 부연구위원,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 Somaya소장의 센터소개
- 주변화되는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숫자 증가에 따라 프놈펜지역 13개센터 개소 운영, 60명의 사회복지사 또는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UNICEF CPC의 지원을 받고 있음

- 2011년 이후 UNICEF와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Welfare)와 협력하여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1차적으로 의료서비스, 음식, 약물치료 등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음.
- 빈민가의 집밖 학교밖의 가출 청소년들을 센터로 오게 하여 학교와 연결하여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아동이 학교로 복귀하였음.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방과후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는 한편, 13세이상의 아동의 경우,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미용, 자동차 정비, 재단, 요리 등) 제공하고 수료 후 취업을 알선함
- 이들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원들의 부모와 가정을 위한 지원: 부모가 가내수공업을 통해 생산한 물건의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소득보장. 마지막으로 지역사회(communitiy)에 대한 투자로 이어짐.
-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사회적 지원제공하고자 하나 아직까지 통일된 아동보호의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은 마련되지 못했음
- 최근 아동을 관광상품화하여 슬럼가 투어, 고아원투어 등의 관광상품 및 일일 자원봉사활동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고아원의 아동들에게 해악적인 영향을 미침. 아동은 관광상품이 아니며, 자족적인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은 캄보디아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홍보하고 있음.

○ Sophea, Florence와 함께 Friends를 돌아보고 자체 운영되는 식당과 수공품 가게를 투어.

